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난 자리가 육신의 고향이 아닐까. 나에게서는 특히 양산이 그러하며 힘들어 방향할 때마다 찾게 되는 내 영혼의 쉼터이기도 하다. 지척의 3보 종찰 중 하나인 통도사를 안고 있는 영취산 자락은 부모님이 누워계시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마르지 않는 강(江)이 침묵처럼 흐르나보다. 설 연휴를 맞아 그곳에 갈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번 깊게 생각하게 한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모두가 지심귀명례한다

은 물이로다.”
조계종 6대 종정에 추대된 스님께서 1981년 1월 15일 서울 조계사 추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행처인 해인사 백련암에서 전해 온 법이다.
그 법어의 핵심인 마지막 대목은 중국 송나라의 고승으로 도천(道川)이라는 호를 지닌 야부(冶父)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함축해 표현한 시의 한구절과 맞닿아 있다. 그 시는

야부 등 당시 중국의 고승 5명이 불교의 중심경전인 <금강경>을 해설하고 주석한 <금강경오가해>에 전해온다.
언제나 그렇듯 사찰의 경내에서 들리는 염불소리에 세월 또한 깊어지는 느낌이다. 오랜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듯 회색빛 통도사 지장전에서 들리는 염불소리 중에 유독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란 구절이 가슴을 적신다. 경내의 모든 존재들이 몸을 낮춘 채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귀명례하고 있다.

사람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49제 등 이런 저런 제사가 많다. 일반 대중들이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알고 보면 제(祭)란 좋은 언행으로 나를 맑게 해 돌아가신 영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스님의 염불보다는 제주들의 맑은 마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평소 선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정 법전 스님은 올 해 신년법어는 “새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씻어내고 산 빛 물빛이 한결 같이 지혜광명을 이루어 사바의 번뇌를 일깨우는 심지의 법등을 밝히자”이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모두들 삶이 고단해지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는 사회에 법어에 담긴 의미가 새삼 가슴에 다가온다.

오래 전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시 때 법자에게 중국의 고시를 손수 적어주시며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라는 글을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그 내용도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행복과 지옥이 함께 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지심귀명례’ 하는 무상한 억급 속의 절절한 감정이 기속된 새해 온몸으로 다가온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법(法)은 대체로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깨치기 위해 모두들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불(佛)·법(法)·승(僧)을 ‘삼보(三寶)’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통도사 만큼 즐겨 찾고 이런저런 추억이 많은 해인사는 진리의 가르침인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고려대장경관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 종찰’로 일컫는다.

효봉, 창담, 고암, 서웅, 성철, 서암, 월하, 해암 등 조계종 역대 종정스님들을 비롯한 고승들의 ‘법어’는 진리를 일깨워 주는 말씀인 셈이다. 그 중에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은 생전에 가야산 호랑이로도 불린 성철 스님의 법어가 아닐까 싶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멀이 돌아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詩會)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



나눔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언제 예경공양 하세요?”

2월의 테마-예경공양

“예경공양은 존경심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며 몸과 말과 뜻으로 물건을 바치고 회향하는 것이다.” <화엄경> 2권

조석으로 법당에 올라 ‘지심귀명례’ 하며 지극정성으로 예불을 올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예불과 함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내 자신의 본성을 비취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경공양을 합니까?
오늘 내일 하루하루 살다가 내일, 모래 돈 많이 벌어서 아들, 딸 대학 보내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와서야 진작에 할 겸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보현행원의 실천덕목 중 첫 번째가 예경본입니다. 모든 생명의 본성이 청정한 불성생명을 믿고 존경해 예경공양을 실천하는 불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경공양은 관념이나 이

론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뤄져야 할 행원이며 실천입니다.
예경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부처님을 눈앞에서 대하듯 하는 것, 이웃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삶이며 스스로가 부처님을 알고 진실된 삶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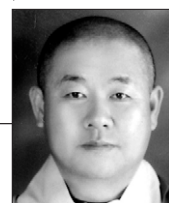
상불경 보살님은 어떤 사람이든 만나서는 사람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네니 그대들은 모두가 마땅히 성불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예배했다. 자기에 게 화를 내건 꾸짖건 굴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이들을 공경했다.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중생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의 삶으로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공경합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의 삶을 살아갑시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스님들을 공으로 초청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스님이 대궐에 들어가려니 “허름한 행색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며 궁중이 막았습니다. 스님은 할 수 없이 새 옷을 입고 다시 궁궐을 찾았습니다. 웃자랑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궁궐들은

입구부터 공손극진하게 안내하며 대접했습니다. 잔치상을 받은 스님은 막상 차려진 음식은 먹지 않고 옷에 음식을 붓어 담아 넣기만 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다른 사람이 물으니, 스님이 답했습니다. “내가 이 새 옷을 입지 않고 누더기를 입었으면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을텐데, 이 옷 덕분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은 다 이 옷 덕분 아닌가? 그래서 음식을 옷에게 먹고 있는 중일세.”

우리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번지르르하면 속모양도 그럴 것이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느 마음에 점잖을 찍으렵니까? 과거·현재·미래가 불가득(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인데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어디 하 시렵니까? 성불하십시오.



송숙스님
남양주 동원정사 주지
철학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불당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더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說

대학을 ‘종교전장’ 만들텐가?

사립대학 안에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 9일 입법예고 한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 안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종교시설과 스포츠 소풍물 등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소식은 몇 가지 서글픔을 갖게 한다. 우선 대학이라는 공간이 시장통으로 변해가는 현실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지만 대학 캠퍼스가 종합레저타운이 돼 가는 현실은 왠지 씁쓸하다. 젊은 인재들의 미래와 국가의 학문적 바탕이 일차게 영글어 가야할 캠퍼스가 지나치게 상업화돼 가는 것은 국가(國基)가 흔들리는 것만큼이나 염려스럽다.
무엇보다 대학 안에서 종교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단순히 여러 종교가 인정되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의 종교가 갖는 ‘물불 안 가리기식’의 공격적인 선교양상이 적절하다. 이미 모든 종교들이 선교의 초점을 대학에 맞추고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대로다. 그런데 대학 안에 종교시설을 허용한다면 대학은 종교전장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계는 이 같은 흐름을 너무 미온적으로 보고 있다가 법이 예고된 뒤에 화들짝 놀랐다.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도 아닌데 그간 눈감고 있는 동안 입법예고 단계에 이르러 버린 것이다. 예고된 법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놓쳐 그럴 수 없다면,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대학 포교의 틀을 짜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목조문화재 보호 핵심은 ‘공조’

국보 제1호 송대문을 화마에 잃은 지 1년이 됐다. 작년 2월 10일 한 노인의 어처구니없는 ‘대사회적 적개심’이 우리 국민을 국보 제1호도 못 지킨 한심한 백성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로부터 1년, 불교계는 물론 각계가 목조문화재 보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목조문화재가 많은 불교계의 경우도 첨단 소방시설의 설비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한 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 숙지, 사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불교계의 소방관련 설비와 각종 조치 상태가 아직 대체적으로 부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화재청이 소방방재청 등 협약기관과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다.
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설비투자와 안전조치 의식교육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설비의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집에서 사람의 예산확대와 관련 기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목조 건축 주변의 정비와 가스 등의 인화물질에 대한 각별한 안전교육 등도 더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결국 사찰과 관련 기관의 공조가 얼마나 원활한가에 따라 화재로부터 목조문화재를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사찰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확립으로 관련 예산의 확대 방안 마련 등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비영리 종교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비공덕

양화사 건강원 **권 자원봉사의 집 권**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 부인성 질환)(아토피, 피부질환)(신경통, 관절질환)(디스크, 혈압질환)(불치, 난치성질환)(회귀성질환)(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정통경락” “민간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민간요법)(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방문상담 및 봉사해 드립니다 ※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수지침, 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 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한상기 / 분회장: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031)251-2213, 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농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양화사(자원봉사의 집)은 불자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

양 화 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 광 합장